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자조금연합, 국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 행동강령 선포식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자조금연합은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프라디아에서 『국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 행동강령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축산업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나라 축산인들이 함께 모여 축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신선에너지 우리축산 우수농가 위촉식>과 <축산농가 행동강령 선포식>을 진행했다.

<축산농가 행동강령 선포식>은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축산의 변화·발전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선포하고, 모두의 실천을 약속하는 행사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이천일 국장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이 정부와 소비자단체 대표로 함께 참여해 그 의의를 더했다.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는 의미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협회장들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이천일 국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원장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발표한 행동강령은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축

산물을 생산할 것 △과학적인 가축사육체계 구축 및 농장 경영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철저한 방역 및 위생관리로 건강한 가축을 사육할 것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을 실현할 것 △깨끗한 농장과 주변 환경 가꾸기를 통해 국민에게 환영받는 축산을 만들 것 등의 5대 공통 강령을 기반으로 유사축종 부문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강령들로 구성된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쳐 축산업 전반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축산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인 모두가 실천의지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포식에 앞서 축산자조금연합은 위생관리·품질관리·전문성을 기준으로 축종별 모범 농가를 선정, 우수농가로 위촉하는 <신선에너지 우리축산 우수농가 위촉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우수농가들은 향후 대한민국 축산 발전에 멘토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축단협과 축산자조금연합은 지난 5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축산’을 위한 다짐 행사를 개최한 이후 대한민국 축산업이 명실상부 국민속의 축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축산인 워크숍을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축산농가 행동강령>의 5대 공통강령 수립 및 축종별 세부 강령을 구체화했다.

중앙일보 [2015. 12. 16]

한우자조금, '한우로 다문화 요리 뽐내기 대회'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가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문화 이주민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2일(토) 오전11시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 한호전에서 '2015 한우로 다문화 요리 뽐내기 대회'를 개최했다.

서로 다른 국적의 다양한 이주민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대회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0팀



이 열린 요리 경연을 펼쳤다. 요리경연은 제한 시간 내에 지급된 한우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각 국의 특색을 살린 고향음식을 출품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경연결과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진행했으며 본선에 참가한 20팀 모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상은 사태부위와 계피, 향료 등을 함께 넣고 우려낸 육수에 한우편육을 얹어 먹는 소고기 쌀국수인 '퍼보(Pho bo)'를 만든 베트남 국적의 누엔티투하(28)씨가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누엔티투하씨는 서툰 한국말이지만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러워하며 고국의 계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전했다.

요리대회 외에도 고향에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명현지 셰프의 '설맞이 명절 음식' 특별 강연, 한우OX퀴즈를 통한 경품 이벤트, 공연과 함께 각국의 음식을 같이 맛보고 즐기는 '한우 스탠딩 파티' 등 다양한 행사들로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탁 사무국장은 "이번 요리대회는 경연이라기보다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같이 모여 각 고국의 음식과 함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분위기였다"며 "한우를 성원해주시는 분들께 사랑을 환원하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

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우로 다문화 요리 뽑내기’ 대회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 전통음식인 한우를 사용하여 자국의 고향음식을 만들어봄으로써 서로의 식문화를 공유하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한돈자조금 CSR,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가 12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사보협회장 최우수 CSR(사회공헌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기업문화 창달과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우리 돼지 한돈을 통

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왔다.

매년 명절마다 사회 소외 계층에 한돈을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해왔으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누고 주민들에게 직접 한돈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

뿐만 아니라 한돈 요리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한돈 나누-리 요리교실’과 ‘한돈 골드빛 레이스 쿠킹 캠페인’ 등을 통해 서울 외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한돈을 통한 사랑을 실천해왔다.

‘한돈 나누-리 요리교실’은 한돈명예홍보대사이난우 요리연구가와 함께 평소 요리를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요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요리교실이다. 해당 요리교실은 현재 3기까지 운영이 완료 되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춘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돈 골드빛 레이스 쿠킹 캠페인’은 한돈 나눔 행사와 각 회원들의 재능기부가 결합된 행사로 지난 2월에는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월에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지난 10월에는 전남 장흥서 진행하며 지역 소외계층에 한돈 도시락을 전달하며 따뜻함을 나눴다.

이 외에도 한돈자조금은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인 야구부에 한돈과 야구 훈련물품을 전달하여 청소년 야구부의 꿈을 응원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 나무심기 캠페인을 통해 한돈 농장의 악취저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한

돈자조금의 미약한 움직임에 큰 상을 받은 것 같아 감격스럽고 기쁘다”며, “대한민국 커뮤니티케이션 대상은 국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더 크게 돌려주라는 의미를 가진 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MILK 인증 확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12월 17일(목)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5년도 K-MILK 인증위원회(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를 개최하고, 2016년도 K-MILK 인증심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K-MILK 인증사업단으로부터 2016년도 K-MILK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14개 업체 277개 제품에 대하여 K-MILK 인증을 최종 승인하였다.

또한, K-MILK 인증 시범사업으로 커피업계 최초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 대한 K-MILK 인증 심의를 승인하였다.

K-MILK 인증은 지난해 12개사 248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4개사 277개 제품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스크림류에서 K-MILK 인증을 받아 이목을 끌었다. 대부분 수입산 우유 원료로 생산되고 있는 아이스크림류의 K-MILK 인증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커피업계 최초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와의 K-MILK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K-MILK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K-MILK 인증위원장)은 “요즘 소비자들은 가치 있는 소비를 중요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K-MILK 인증은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수입산 유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선 K-MILK 인증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이번에 최초로 아이스크림의 K-MILK 인증과 커피업계 시범사업으로 국산우유 사용처 확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16년도에는 모든 국민들이 K-MILK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육계협회, 중 수출 앞두고 방한 중국인 대상 삼계탕 시식회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심순택)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삼계탕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지난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에서 삼계탕 시식회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삼계탕 시식회는 한·중 FTA로 주목받고 있는 삼계탕 레토르트 상품을 해외



에 수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됐다. 이날 삼계탕 시식회

에는 정병학 한국 육계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국장, 하림·마니커·목우촌 등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식회 행사에 참석하여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국산 삼계탕 가공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앞장섰다.

이날 삼계탕 시식회는 중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 5위에 선정된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마루에서 진행되었다. 시식회에 사용되는 제품은 하림, 마니커, 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 코리아 등 한중FTA로 삼계탕 수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삼계탕 레토르트 제품을 선보였다.

현장 삼계탕을 시식한 중국 관광객 A씨(23)는 “삼계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전통 닭고기 요리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다”며 레토르트 삼계탕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펼쳐진 삼계탕 시식회는 중국 관광객의 현장 인기에 힘입어 12월 23일 한 번 더 개최되었다.

(사)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한국의 대표 보양식품 중 하나인 삼계탕이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며 “하루라도 빨리 중국 삼계탕 수출이 진행되어 힘들어하는 많은 양계 농가들이 좋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김세정 기자 [2015. 12. 23]

경기도, 2015년도 경기도 양봉산업발전 워크숍 개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농가,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15년도 경기도 양봉산업발전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조상우 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해 양봉협회 시군지부장, 양봉농가, 전문가, 도·시군 관계공무원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FTA체결, 꿀벌응애 등 질병 확산, 기상이변에 따른 밀원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농촌진흥청 이만영 농학박사의 ‘꿀벌 봉군관리 및 육종을 이용한 강군(強群) 육성’, ▲경북대학교 차용호 교수의 ‘월동 후 봄철 꿀벌 관리 신기술 소개’, ▲허섭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의 ‘경기도 축산시책 및 양봉산업 육성방안’ 등 FTA시대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서상교 국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양봉산업은 양봉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생태계 보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양봉농가와 함께 FTA시대에 대응하는 상시 소통체계를 갖추고, 양봉이 농촌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2015. 12. 23]